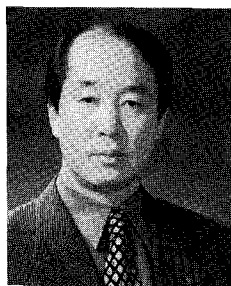


양계인(조합원)을 위한 튼튼한 조합 만들기에 주력...



이 영 재

(서울경기양계농협 조합장)

1. 경영개선명령서를 받고

농림부로부터 부실조합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서를 받은 지 한달 여가 지나면서 우리조합은 원활한 합병추진을 위해 임직원 전원이 방안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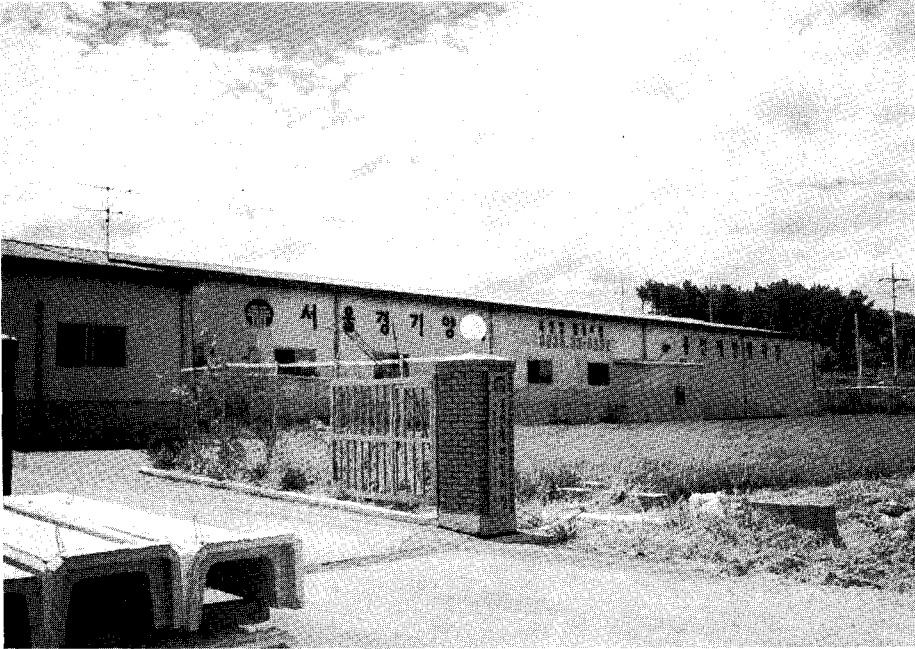
합병은 서울경기양계, 대구경북양계, 전남광주양계를 통합하여 신설합병의 형식으로 2003년 9월 1일부로 새로운 양계조합의 업무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 조직 및 인력 감축, 불용 자산의 조기처분, 경영체계의 정립 및 강화를 합병을 위한 선조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조합은 우리의 무지를 반성하며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직의 건실화를 위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합병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지난해 성과

우리조합은 거대부실을 초래한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임직원 및 조합원의 희생을 통한 무수익 사업장 폐쇄 및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경제사업규모는 감소하였지만 2003년 3월 현재 경제사업은 흑자 진행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적절한 수급조절에 의한 계란 재고의 최소화, 둘째 무수익거래처에 대한 거래중지로 인한 수익을 향상, 셋째 대형할인점 등 거래처에 대한 직접납품비율을 90%이상 유지, 넷째 계란등급화실시 및 재선별을 통한 식품용계란과 가



공용계란의 구별 실시로 품질향상, 다섯째 채권관리팀 강화로 부실채권방지와 감소 등이다.

3. 양계업계의 총체적인 불황, 부실 증가 부추겨

작금의 현실은 생산자 시대를 마감하고 소비자 시대가 시작되면서 소비자가 경제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조합은 소비자시대의 시장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품질향상 및 marketing의 노력을 하지 않는 생산자위주의 경영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합장에 당선된 뒤 조합부실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조합의 능력에 비해 무리한 경제사업추진이 문제였고, 둘째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조합을 운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운

영되었던 점, 세째는 업무추진에 대한 원칙의 결여와 투명성 결여라고 생각된다.

이런 원인들에 대해 우리조합은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과거 우리조합은 양축인을 위한 무한봉사라는 축협설립의지에 따라 양축인과 양계산업

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였으나 양계조합만의 능력으로는 풀기 힘든 숙제였음을 고백한다.

경영이 어려운 양축가를 위해 현실적인 접근을 선택하여 사료를 공급하였고 생산자인 조합원들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할인매장을 선점하고자 과다물량을 취급하면서 결국은 몇몇상인들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통에서의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우리조합은 생산자인 조합원 및 양축가의 접근방법으로 여러 염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그사이 우리는 더 큰 당연한 사명감을 잊고 있었다. 즉, 건실한 사업을 경영하여 조합원의 투자금인 출자금을 증대해주고 수익금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어려운 양축인 및 조합원에게 지원하고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조합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그만큼 건실하지 못했던 것이다.

양계조합의 존립의 의미가 양계산업의 정상화에 있다는 사명감의 결과가 행위자인 우리의 능력부족과 양계업계 아니 양축업계 총체적인 불황으로 결국 경영부실조합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 조합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고 경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2002년 결산결과 경제사업의 사업규모는 654억원으로 신용사업 예수금의 47%의 규모이다. 일반농협의 경우 대부분 10%미만의 경제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사업으로 인한 적자의 폭을 줄여 수익을 내고 있다.

4. 대안제시 및 실천 필요

양계조합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칙을 지키되 부실 경제사업은 폐쇄하고, 수익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농림부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경영분석방법은 조합의 재산과 손익이 나타나 있는 재무제표를 놓고 여러 가지 재무분석방법으로 평가하여 조합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기업평가 방법이다.

농림부는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해결방법으로 경영의 규모화라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통합하였듯이 경쟁력없는 조합은 통폐합으로 규모화를 시키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시키고 있다. 그런데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

앞에서 본인은 양축인과 양계산업의 어려움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였으나 양계조합만의 능력으로는 풀기 힘든 숙제였음을 고백하였다.

아직도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은 우리조합의 역량에 맞게 경제사업을 축소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양축 조합원들에게 있어 경영을 못하여 부실화된 조합도 달갑지 않겠지만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경제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사업만 하는 조합도 원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하루라도 빨리 부실조합에서 벗어나 우리조합의 역량에 맞게 경제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양축인을 위한 무한봉사라는 축협의 설립의지를 지켜 나아갈 것이다.

많은 양축인들은 우리나라가 축산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곤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차근차근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세워서 닥쳐올 문제를 생각하며 양축인을 큰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정부의 성격에 모나지 않게 전시행정으로 돌려가며 자금지원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농림부의 양계조합 경영개선요구사항에는 양계산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제시가 없다. 양계산업을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을 이끌어 가되 책임의식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더 이상 오늘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책임 없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양계산업의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

는 관료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5. 양계산업의 방향은?

농업정책은 국가적인 사업이다.

손익논리에 의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도 식량자족과 농민보호를 위해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양계업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인 것이다.

물론 국가에서도 자금지원 및 양육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탁상공론, 뒷북행정, 전시행정효과로 축약되는 국가정책은 엉뚱한 곳에 돈이 쓰여지고 있다. 농민의 소리를 경청해야한다.

그리고 입안을 하고 자신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 양축을 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정부도 학자도, 상인도 아닌 양육인이다. 논리적인 사고와 정책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양육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양계산업의 방향은 양계인의 목소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양계조합의 역할

양계조합은 양계산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경영체계를 원칙과 합리성 및 상호연계가 가능한 체계로 변화시키며 양계전문가, 정책전문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인력구조를 갖추며 소비자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양계업이 이끌어 져야 한다.

농림부장관령으로 시행되는 부실조합합병

계획을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계인들의 현실에 맞는 합병계획이 되어야지 숫자로 표현되는 합병성공에만 매달려 합병을 한다면 머지않아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발생할 어려운 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력이 떨어지면 보약을 먹듯이 양계업이 어렵다고 농림부에서는 양계업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양계인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한다 말인가!

현재의 양계산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양계농가가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농림부는 합병명령 등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양계인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제 유례없는 양계전문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명령으로 구조개선이 시작되었다. 이미 양계조합들에 대한 합병명령으로 조합들이 위태해지자 생산자들이 다른 유통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상인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구조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은 바 소임이 무엇인지 정말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농협도 많은 양육인과 조합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가고 수익을 잘내는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농림부, 농협중앙회 그리고 우리 양계인 모두가 합심한다면 우리 양계인들은 옛 명예를 되찾을 것으로 확신한다. 더 이상 양육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계**